

우리 건축문화재 다시보기

Re-thinking about Korean Building Treasures

건축은 시대적 문화의 총화이기에 어느 문명국이건 역사문화의 계승이란 차원에서 건축문화재를 어떻게 보존 계승하고 현대에 접목 발전시키는 가는 바로 국가적인 자존심이며 다른 국가, 다른 민족과 차별화하여 존재의미(정체성)를 찾는 대상이 되었다. 우리는 오천년의 민족문화를 자긍심으로 삼아왔고 오늘의 대한민국은 가깝게는 대한제국에 그 뿌리가 있음을 천명해 왔다. 이런 거창한 대의명분에서 뿐만 아니라 불타는 남대문(송례문)을 혹은 통곡하며, 혹은 아린 가슴으로 바라보던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도 건축문화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인식케 한 실증이 아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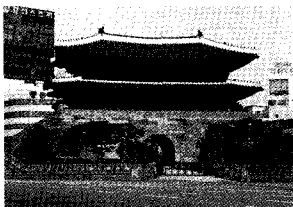
지난 2009년 한 해는 건축문화재에 대한 논의가 대단히 활발했던 한 해였고, 아직도 정리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기에, 새해를 맞아 우리의 건축문화재 중 많은 생각을 하게한 대상물을 중심으로 3회에 걸쳐 본인의 개인 소견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의 건축문화재는 고려 이후의 것이 겨우 남아있고, 그나마 소위 개화기로 불리는 조선말에서 대한제국을 거쳐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역사의 질곡(桎梏)기에 우리 전통건축은 직식되고 말아, 우리보다 다소 먼저 서양문화를 수용한 일본인들에 의해 이 땅에도 일본적 번안(倣案)형태의 서양식 건물과 일본식 건축이 난무하였으며, 우리의 건축은 도시의 주택에 그것도 상업적 이유로 오랜 건축적 품위를 팽개친 모습으로 명맥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6.25동란은 전국을 피

폐하게 하였고, 실용적인 이유로 소위 신식 문화주택 등 국적불명의 주거문화가 판치게 되었고, 고도(古都) 서울이 콘크리트 덩어리인 아파트의 난립으로 숨막히게 되고 말았다.

그나마 최근에는 숨차게 모방해온 서양건축의 밑물은 건축사들의 노력으로 다소 정리 되는가 싶더니, 이제는 서울의 한 복판에도 온통 유리와 철로 뒤덮인 몰개성의 대형건물들이 판치는 곳이 되어 역사문화도시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다행히 우리의 역사문화에 대한 국민적 갈망이 북촌 한옥마을을 보존하게 하였고, 가구 하나 변변히 남지 않은 궁궐들도 일본인들에 의해 강제 철거된 지 한 세기가 지난 요즘쯤 겁대기나마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한국인의 끈기를 새삼 기대하게 한다.

부디 이 땅의 건축사들이 우리 역사문화를 모른다가 아니라 우리의 전통문화를 현대의 건축에서 빛나게 계승 발전시키기를 손 모아 기다려 본다.



(그림 1) 불타기 전의 남대문과 화재로 전소된 후의 남대문 모습 (필자촬영)



(그림 2) 100년전 서울과 현재의 서울 모습 (사진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 송례문보존자료집, 서울학연구소)

목 차

1. 우리의 건축문화재, 어떻게 보아야 하나
Think about how we see our Building Treasures

2. 원구단과 조선호텔
The Won-Gu-Dan and the Cho-sun Hotel

3. 한옥 문화재·한구설 대감댁, 독락당 그리고 한옥마을
Conservation of the Traditional Houses, compared with some samples

필자 : 홍대형, 현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by Hong, Dae-hyung

홍대형 교수는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 공부했고, 안일도시건축, 법아건축 등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하였으며, 1972년부터 전북대학교에서 교수생활을 시작하였다. 그 후 1979년부터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에서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으며, 80년대 초에 미국 M.I.T에 1년간 Visiting Scholar로 체류하며 미국의 건축교육현장을 두루 경험하였다.

현재 대한건축학회 참여이사 외에 한국건축역사학회, 국토도시계획학회, 건축교육사실학회, 그리고 한국건축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의 건축문화재 1 서울편, 도서출판 기문당』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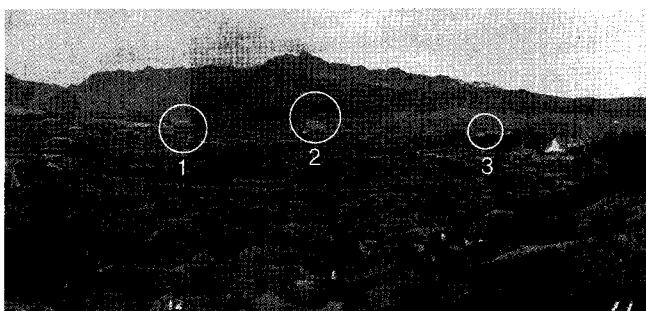


2. 원구단과 조선호텔

- The Won-Gu-Dan and the Cho-Sun Hote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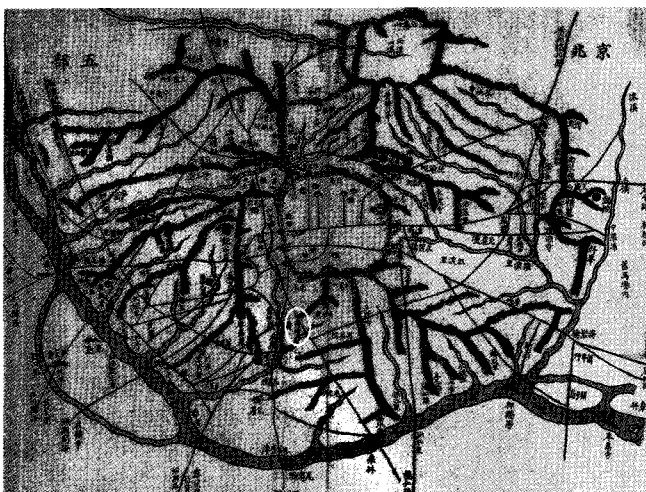
대한제국과 원구단 그리고 조선호텔

원구단은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하늘에 비는 제천의례(祭天儀禮)를 거행하기 위해 대한제국의 선포에 따라 만들어진 건축물이다.



(그림 1) 원구단 입지(상/1.중화전, 2.경복궁, 3.원구단)와 전경(하)

우리나라의 제천의례는 오래전 부족국가시대부터 삼국시대에 도 전통에 따라 행해졌다 하며, 유교적인 예(禮)에 따라 제도화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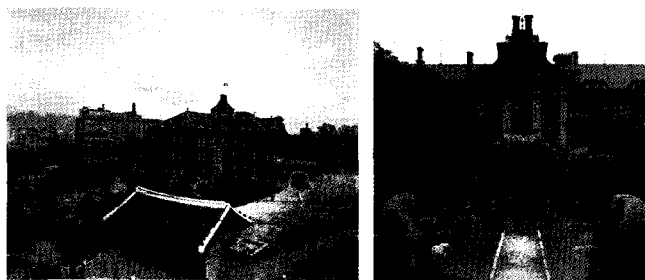


(그림 2) 남단의 위치(자료출처:동여도)

것은 고려 때 부터였다 한다. 그러나 조선 개국 초에 조선 조정 스스로 중국의 제후국임을 천명하였으니 이에 따라 “원구는 천자(天子)의 제천예(祭天禮)이니...” 제후국(諸侯國)의 예로서는 어긋난다 하여 하여 혁파(革罷)하였다 했으니 스스로 중국의 속국임을 인정 한 꼴이 되었다. 물론 조선 초기 세조시대에 원구단에 대한 예를 행 하기도 하였고, 정조대에는 원구단을 남단이라 고치고 천신(天神)에 제사하는 대신에 풍(風), 운(雲), 뇌(雷), 우신(雨神)에 대해서만 제를 올리는 것으로 격하하여 존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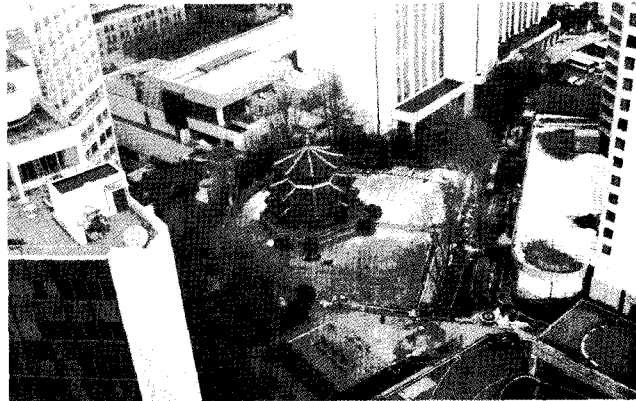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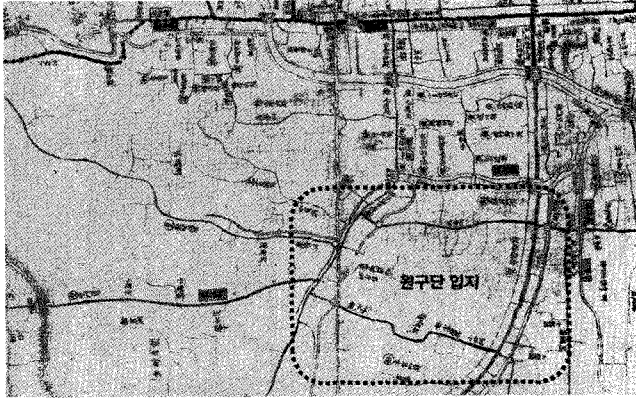
이러한 원구단은 고종시대에 독립적인 황제국(皇帝國)으로 격상 한 대한제국(大韓帝國)을 선포함에 따라 독립적인 연호로 광무(光武)를 쓰고 황제가 하늘에 제를 올리기 위하여 다시 조성되었다.

지금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대한제국과 대한임시정부를 계승 한 독립국가임을 천명하고 있으니, 하늘이 인정하는 독립국임을 만 방에 알린 제천례를 치렀던 원구단은 바로 우리의 독립의지를 가시 (可視)적으로 표방하는 상징적인 국가적 의미를 갖는 중요 시설인 것이다. 이런 까닭에 제국주의의 강제적인 한일병합에 성공한 일본 이 우선적으로 훼손하게 되는 대한제국의 시설물이 되었다.



(그림 3) 조선경성철도호텔 전경

현재의 원구단(園丘壇)의 터는 조선 초에는 공주의 집터였다 하며, 선조대에는 왕자 의안군(義安君)의 저택 자리였고, 임진왜란 후에는 남별궁이라 하여 중국사신의 영빈관으로 쓰였던 자리라 하며, 당시 한성 남부 회현방 소공동계(小公洞契)의 해좌사향(亥坐巳向) 자리로, 조선호텔 건물 입지가 바로 이 제단의 자리이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원구단의 부속시설인 팔각당 황궁우(皇穹宇)와 그 앞에 있는 3기의 돌북(석고) 뿐으로 그 중심시설인 제단이 남아있지 못한 것은 못내 아쉬운 우리 역사의 서글픈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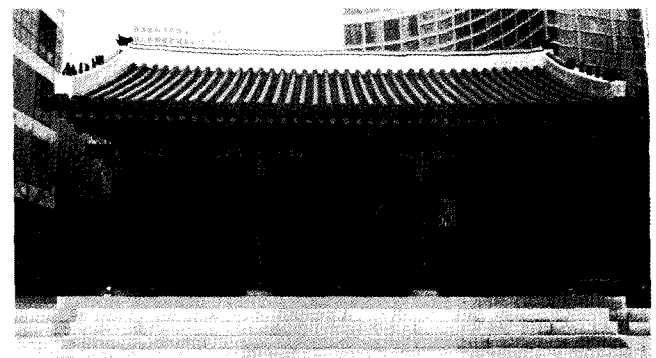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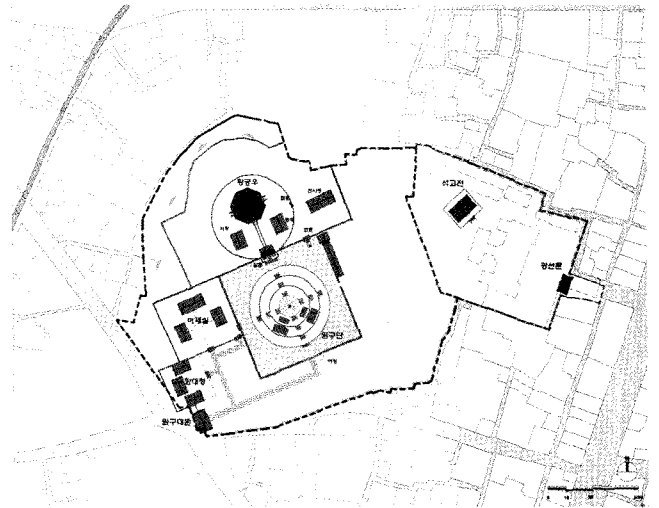
〈그림 3〉 과거와 현재의 원구단 입지

이 원구단은 화강암으로 된 원형의 3층 제단으로 중앙 상부에는 황색으로 도색된 원추형 지붕(황막)이 있었고, 황궁우는 제 지낼 때 필요한 천신의 신위판(神位版)을 모셔두고, 기타 각종의 제례용구들을 보관했던 부속시설로 고려된다. 이들 시설은 융희2년(1908) 7월에 국유로 편입되었고, 일제 강점 후인 1914년에 황궁우만 남긴채 원구단을 없애고 그 자리에 총독부 철도국 산하의 경성철도호텔을 건축하여 일본의 고위 관료들이 조선에 출장을 때 머물던 자리가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대한제국 독립의 상징 터를 일제는 저들의 잠자리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것이 지금도 외래 자본을 끌어들이 지은 고급 호텔로 버젓이 쓰이고 있는 것을 어찌 보아야 하나.



〈그림 5〉 1967년 무렵 조선호텔 건립모습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 보면, 원구단은 3단의 석조 제단과 부속 시설로 황궁우와 동서무가 있어 각각의 영역은 담장으로 구획되었고, 단의 서쪽에 향대청과 어제실이 있고 동편에 신실이 있었으며 이들 동편에 구획을 따로 하여 석고각(石鼓閣)이 있어 그 안에 3개의 돌북이 나란히 놓여있었던 것이 당시 기록으로 확인된다. 그 터가 지금의 롯데호텔과 백화점 자리까지 포함되며, 석고각은 고종 즉위 40주년을 기념하여 세워진 것으로 원래는 원구단의 동쪽, 구 총독부의 도서관 자리였다 하며, 이 때 석고각의 정문인 광선문도 함께(1902) 세워졌다. 또한 현재의 조선호텔 신축 때에 기록도 없이 사라진 줄 알았던 정문이 우이동에 백운문(白雲門)이란 이름으로 발견되어 서울시가 이건(移建)하였으나 제자리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세워진 점 아쉬우나, 그 형태라도 남겨진 점은 다행이라 하겠다. 물론 원래의 정문 이름을 비롯하여 온전히 보존되었는지 하는 고증의 문제는 아직 미결인 것 같다.



〈그림 6〉 원구단 추정배지도(상)와 과거(백운문)와 현재(이전 복원)의 정문 모습

원구단(園丘壇)의 명칭에 대하여

제16128호	관	보	2005.11.16.(수요일)
고 시			
<p>◎건설교통부고시제2005-356호</p> <p>도로구역명칭(추가 및 폐제) 결정의 고시</p> <p>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은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및 폐제) 결정하여 이를 고시한다.</p> <p>2005년11월16일</p> <p>건설교통부장관</p> <p>1. 도로구역명칭(추가 및 폐제) 결정 내용</p> <p>○구 분 : 인천(현설 및 폐제)</p> <p>○종 류 : 고속도(제55호)</p> <p>○도명명 : 중앙고속도로</p> <p>○구 간 :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경상남도 김해시 태동면 일촌리</p> <p>○연 장 : 00.05km</p> <p>○주요 경과지</p> <p>-대구광역시 동구, 수성구</p> <p>-경북 경산시, 경상시 남원면, 칠보군 청도읍, 화양읍</p> <p>-경남 밀양시 상동면, 삼척면, 황성동, 용평동, 가곡동, 삼남면, 삼왕산읍, 김해시 생림면, 상동면, 태동면</p> <p>○구역변경(추가)결정이유 : 민원 및 현장여건 반영(밀양시 삼왕산읍 중지리, 김해시 생림면, 상동면, 태동면)</p> <p>2. 사업시행기간 : 2001년 2월-2006년 2월</p> <p>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도지와 지장물의 표시, 지면, 지족, 소유권, 소유권 등의 권리의 명세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가. 공람장소</p> <p>-한국도로공사 : 대구-부산고속도로 건설사업소(경상남도 밀양시 삼척면 남거리 918-1,</p>		<p>전화 055-355-9528-30)</p> <p>-사업시행자 :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 (경상남도 밀양시 삼척면 남거리 918-1, 전화 055-355-9595)</p> <p>나. 유효기간 : 2005년11월-2006년 2월</p> <hr/> <p>◎문화재청고시제2005-81호</p> <p>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해 지정된 사적 제157호 "원구단/환구단"의 한자표기 및 독음을 위하여 동법 제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p> <p>2005년11월16일</p> <p>문화재청장</p> <p>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명칭 결정</p> <p>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57호 원구단/환구단</p> <p>나. 결정내용 : 동 문화재의 한자표기 및 독음을 "환구단(園丘壇)"으로 함.</p> <p>다. 결정사유 : 사적 제157호 원구단/환구단의 한자 표기와 독음에 있어서 환구단(園丘壇), 원구단(園丘壇), 환구단(園丘壇) 등이 혼용되고 있는 바, 단을 조성하고 고종황제가 제사를 지낸 1897년10월12일과 「독립신문」의 기록을 존중하여 동 문화재 명칭의 한자표기 및 독음을 '환구단(園丘壇)'으로 함.</p> <p>2. 결정일자 : 판보고시일</p> <hr/> <p>◎중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5-6호</p> <p>산림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유전자원보호법으로 지정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p> <p>2005년11월16일</p> <p>중부지방산림관리청장</p>	

(그림 7) 2005년 11월 16일 관보

원구단은 지금의 공식 명칭이 아니다. 2005년의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원구단이 아니라 환구단이란 칭호를 공식 칭호로 사용하고 있다. 이 고시의 가장 중요한 개명(고시 전에는 모두 원구단으로 불렀다.) 근거로 1897년 10월 12일 자 독립신문에서 “환구단”이라 썼다는 것이나, 독립신문에서는 어찌 된 일인지 원구단과 환구단이 혼용되고 있고, 기사내용에서도 혼용된 것이 있다. 이는 당시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 또한 헷갈리고 있는 모습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많은 자료를 참조할 수 있으니, 이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하여야 할 것이며, 헷갈려 쓰고 있는 옛 신문기사 중의 어느 것을 따르든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가.

간단히 말하자면, ‘園’ 자를 한한대자전에서 찾아보면 그 발음이 ‘환’ 과 ‘원’ 2가지이며, “둥글다”라는 뜻은 원으로 읽도록 나와 있다. 즉 원구단은 하늘에 제지내는 둥근 제단이며, 하늘을 둥글게 알았던 전통사상과도 맞는 표현인 것이다. 이렇게 명백한 근거를 외면하고 편의주의로 오류를 범한 고시는 빠른 시간 안에 다시 고시로 바로잡아 우리의 젊은이들을 무더기로 무식에 빠지게 하는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겠다. ■